

심하게 흡수된 치조제를 가진 완전 무치약환자의 수복

-총의치의 교합형성-

(Occlusal Construction of Complete Denture)

최대균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연자약력

1974.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79. 2~1986. 3: 일본대학교 치학부 보철학교실 박사학위취득
1996. 2~1997. 1: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방문교수
1986. 3~현재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안모를 형성하고 있는 해부학적인 제구조는 서로간에 협력하면서 발육하고, 일생을 통하여 각자의 수행하게 되며, 또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서로간에 의존 및 협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이면서 통적인 평형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기능도 원활하게 유지 되어지며, 이러한 평형상태가 유지되어지는 동안의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생을 통하여 이러한 동적인 평형상태는 파괴될수 있으며, 충치와 같은 비교적 적은 변화에서부터 크게는 생활조직의 형태나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연치의 발거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는 다양하다. 이러한 구강의 제변화 중에도 모든 치아가 벌거되어 무치악으로까지 진행되면, 구강의 제기능과 안모의 심미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치과보철 치료시에는, 특히, 총의치 치료시에는 서로서로 의존 및 협조를 하는 구강 제조직의 동적인 평형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강기능의 회복과 안모의 심미회복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의치에 있어서의 교합은 교합접촉관계만을 생각하기가 쉬우나, 총의치는 인상면(Impression surface), 연마면(Polished surface), 교합면(Occlusal surface)의 3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면들은 각각 의치의 유지, 안정, 지지, 심미성, 발음, 구강조직의 건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여건이 충분히 만족되어질 때에 비로소 교합접촉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하여 기능의 수행이 가능해지며, 이는 의치를 구성하고 있는 3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만이 비로소 기능 및 심미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3면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으며, 어떻게 하여야 기능적이면서 심미적인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말하면 이러한 3면의 조화로움속에 인공치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총의치 인공치아의 이상적인 위치는 자연치가 있었던 위치에 배열되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상적인 인공치아의 위치를 찾는데는 정확한 인상체들이 그 전제조건이며, 인상을 정확하게 채득한다는 것은 인공치아의 위치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또한 총의치의 교합은 인공치아의 상하 및 전후좌우적인 위치에 의하여 결정되며, 인공치아의 위치에 의하여 기능 및 심미성이 결정된다. 인공치아의 위치는 인상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수직 및 수평적인 악간관계에 의하여도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악간관계의 부정확함으로 인하여 II급 또는 III급의 치아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가끔 임상에서 수직 및 수평적인 악간관계의 잘못으로 상하악의 관계가 부자연스럽게 되며, 이로 인하여 비기능적인 것은 물론이고, 비심미적으로 된 경우를 왕왕 발견할 수가 있다.

총의치의 교합재구성에 있어서는 이상 설명한 바와같이, 교합과 관련된 여러가지 분야가 모두 기능적 이면서 생리적인 그리고 구강이 한 단위로서의 유기적, 종합적, 전체적인 면에서 성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통체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만족하게 된 다음에, 비로소 인공치의 교합접촉관계를 만족하게 해주어야 저작이라는 기능과 심미적인 교합재구성이 가능해진다.

총의치의 교합재구성에 대한 본 강연에서는, 총의치에 있어서 인공치아는 어떠한 위치에서 존재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위치관계에서는 상하 인공치아는 어떠한 상태로 접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며, 본 강연이 여러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임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하는 바이다.